

다문화여성의 사회적 관계망 분석†

The Analysis on Social Network of the Married Immigrant Women

김민정*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소비자정보학과

Kim, Min Jeong

Dept. of Consumer Studies, KeiMyung Univ.

Abstract

International marriage is composed over 10% among total marriage in Korea. Korea is changing rapidly to the multi-cultural society. The researches need to inquire into what the state of 'ethnic communities of the immigrant wives as the minorities' is and how the immigrant wives build and develop the ethnic networks longitudinally. At the beginning, this study tried to know what kinds of social networks the immigrant wives use for the process of being married and for the adjusting to marriage and Korean culture. For the purposes of this study FGI and the interviews were applied for the immigrant wives and the specialist groups in metropolitan city DaeGu. 18 interviewees from Vietnam, China, Philippine, etc.. were collected by the snow-ball sampling.

The social networks of the immigrant wives in DaeGu were mainly private, but were deterritorialized and reterritorialized actively. They managed the close relationship with their family members of motherland, and had the networks sticky with relatives, friends, and other immigrant wives from the same countries. Even though they acquired the Korean nationality, they have the transnational identities. But the internet environment of Korea can contribute to activate the social networks for the ethnic communities of the immigrant wives.

Keywords: the married immigrant wives, ethnic communities of the minority, deterritorialization, reterritorialization, the transnational networks.

I. 들어가기

우리나라의 전체 결혼 중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3년 1.6%에서 2004년 이래로 줄곧 10%를 상회하고 있다(Bureau of Statistics, 2011). 국제결혼 이주자의 증대는 한국에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관심을 폭발시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다문화사회란 한 국가 또는 특정한 영역 내에 다수의 문화가 공존하면서 고유한 문화가 존중되는

사회를 의미한다. 한국정부가 '다문화가족'이라는 공식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다문화가정 여성을 문화적 차이에 기반을 둔 에스니시티를 통해 분류하고 이들과의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의 많은 다문화관련 연구들과 정책은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사회에 정착한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어떻게 한국사회 특히 가정에 잘 적응하고 편입될 수 있는가에 대해 관심을 집중했었다. 사실 이들의 소수민족집단으로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0-330-B00178)

* Corresponding Author: Kim, Min Jeong
Tel: 053-580-5862, Fax: 053-580-5313
Email: kmjng@kmu.ac.kr

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찾기 위한 움직임은 아직까지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6조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정 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는 다문화가정들이 문화활동을 하기보다는 상부상조하는 존재로 그려진다. 소수자가 문화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개별자가 아닌 문화집단으로 성장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아직까지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문화집단을 형성할 정도로 성장하지 못했다(J.R.Choi, 2010).

소수민족집단의 문화활동 증진에 관심이 많은 문화체육관광부는 다문화주의정책의 비전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기반으로 창조적 문화국가 실현”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다문화사회 문화적 교류 및 소통 강화”로 정하고 있다. 역할과 기능은 다문화사회를 문화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민의 언어 문화적 적응지원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 통합한다. 둘째, 이주민과 내국인간의 문화적 이해 증진을 통해 사회공동체를 유지 및 발전시킨다. 셋째, 이주민의 고유한 문화를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문화권을 보장한다(Y.J.Choi, 2009).

다문화사회를 문화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은 이미 이주민의 문화권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화내지 통합을 추구하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소수민족집단이 공적 조직으로 역할을 확대하고, 다수자의 영역에서 한국인으로서 평등권리와 성취권리를 추구할 때 우리 사회에서 선진 이민국가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갈등이 배태될 가능성은 여전히 농후하다.

흔히 디아스포라로 일컬어지는 국경을 초월한 민족문화 네트워크는 민족문화 정체성의 공유, 민족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교류, 국지적 문화의 글로벌화 등을 야기하는데, 그런 이유로 디아스포라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Crang, Dwyer & Jackson, 2003). 고전적인 의미의 디아스포라가 아니라 교통통신 수단의 발달과 생산구조의 글로벌화로 국가 간 자발적인 인구이동이 급격히 전개되고 있는 초국가적 환경 속에서 최근의 결혼이주 여성들의 이주 패턴도 초국가형 디아스포라(transnational diaspora)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다문화사회로 진전되면서 이주여성들이 탈영토화되고, 재영토화되는 과정(Tomlinson, 1999)에서 초국가주의란 민족단위의 네트워크가 발달하고, 국경을 가로질러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와 문화적 네트워크가 증대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초국가주

의는 이주자에 의해서 출신국과 정착국 사이에서 연결되는 사회적 관계의 형성 및 유지에 관심을 갖는다. 즉 문화의 국제적 이동은 네트워크로 연결되며, 이를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정체성이란 맥락에서 동시에 접근하는 데 장점을 보인다. 이주자는 정치적으로는 거주하는 국가의 지배를 받지만, 경제적 활동과 문화적 활동은 거주하는 국가의 영토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

서구와 비교해 볼 때 한국의 다문화사회의 전개는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J.R.Choi, 2009)고 볼 수 있다. 한국정부가 2006년 ‘다문화 다민족 사회로의 전환’을 선언하였으나, 다문화사회의 성격이 ‘전환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소수민족집단 공동체가 형성되어야 한다(Kim et al., 2008). 하지만 다문화주의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이윤배반적이게도 새누리당 비례대표 당선된 이자스민에 대한 우리국민이 이중적 반응에서 보듯이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한국사회에서 정치적 입지를 확대하고 소수민족집단 공동체를 형성하여 정치적 세력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다문화사회를 추구하고 이주여성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면서 나타나는 사회적 관계망의 특징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주여성들의 문화적 정체성의 토대가 되는 소수민족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소수민족 내부의 상호주관적인 고유의 영역(자조모임, 친목모임, 종교모임 등)을 통해 소수자가 소수민족집단으로 형성되는 과정은 그들의 사회자본이 축적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다문화가정의 결혼 이주 여성들이 가족과 함께 친밀성의 영역을 구성하는 소수민족집단이 형성되어 가는 현주소는 어떠하며, 이것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전개되어 갈지 종단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1차적으로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을 형성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결혼과정과 결혼 후 적응과정에서 한국사회와 또 그들의 출신국의 가족 친지들과 어떤 자원들을 교환하며, 어떤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다문화사회의 욕구충돌

오늘날 국민국가의 경계 안팎에서 새로운 이주자와 기

존의 시민들, 사회적 소수와 사회적 다수 집단이 공존하면서 겪는 갈등은 적어도 네 가지의 상충하는 이해들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다. 기존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낮은 사람들의 등장이 가져올 일상생활의 충격이나 노동시장에서 경쟁의 심화, 전통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걱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따라서 기존의 시민들은 새로운 이주자들에게 그들이 선택한 새로운 사회의 규칙과 관습, 생활양식 등을 존중하고 적응해 줄 것을 기대하게 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시민들은 새로운 이주자들의 문화를 완전히 무시하거나 그들의 인권을 거들떠보지 않는 인종차별주의자로 보이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기존의 시민들은 자신의 오래된 이웃에게 보여주는 심정적 유대를 새로운 이주자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고, 그들의 정착을 도우려는 인간적인 노력을 보여줄 수도 있다. 이처럼 상반된 두 가지 감정은 한 사람의 의식 안에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고, 집단을 달리하여 좀 더 배제하는 쪽으로 기울어는 이른바 극우집단과, 좀 더 포용하는 쪽으로 기울어는 인권관련 집단들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새로운 이주자들 역시 서로 다른 두 가지 욕구를 동시에 갖고 있다. 우선 이들은 기존의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자신들의 인종과 문화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한 개인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 즉, 기존의 시민들과 동등한 자격을 갖는 한 개인으로서 오직 자신들의 능력을 평가받기 원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새로운 사회의 주류집단에 참여하고 성취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은 새로운 사회에서도 소수집단의 일원으로서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받기 원하고,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을 유지하려고 한다. 다시 말하자면, 새로운 사회에 완전히 동화되는 것은 거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사회에서 고립된 소수집단으로 살기를 바라지도 않는다. 사회적 소수

로서 새로운 이주자들은 본질적으로 갈등하는 이 두 가지 요구가 동시에 충족될 때 자신들이 완전한 사회적 인정을 받았다고 느낄 것이다(N.K.Kim, 2005).

2.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에 관한 기존이론들에 대한 검토

1) 구조주의적 접근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과정을 1)경제적 필요에 따라 노동력의 수요,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하거나 2)전지구적 차원의 자본축적과 자본주의 생산체계의 결과물로 설명한다. 국제적 이동의 원인은 무엇이며,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 틀은 분석단위, 분석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개인(혹은 가족)의 합리적 선택에 따라 이주가 일어나는지, 아니면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요인들과 같은 행위자 자신이 아닌 다른 구조화된 체계가 이주를 발생시키는지를 설명한다. 즉, 행위자 중심이론과 구조중심이론으로 구분된다.

행위자 중심이론은 개인과 가족을 분석단위로 하여 국제이주를 개별 행위자의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로 파악하는 이론들을 지칭한다(Seol, 2001; Jeon, 2008; Park, 2009). 인적자본론은 이주를 인적자본투자의 하나로 보고, 사람들이 교육, 경험, 훈련 등 자신의 인적자본을 투자하여 더 큰 수익이 기대되는 지역으로 이주한다고 가정한다. 이주의 신경제학적 관점은 인적자본론과 달리 이주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가족이나 공동체 등의 보다 큰 단위의 행위자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이 이론의 제한점은 개인과 가족의 의사결정 범위를 넘어서는 경제구조적인 요인과 이주자가 속한 국가와 이주목적 국가

<Table 1> Needs Conflict of Multi-Cultural Society

	Existing Citizens	New Immigrant
Assimilation Needs	Have humanistic sympathy and efforts for the immigrants to adopt and assimilate the mainstream society rapidly	Want to be acknowledge as a human and to participate and achieve in mainstream society irrespective of their ethnicities or culture from existing citizens
Conservation Needs	Expect the immigrants to respect and adjust the rules, norms and lifestyles of new mainstream society	Want to be recognized their own cultural identities as a minority ethnic group and to manage their own culture and tradition

*Reorganized based on research of N.K.Kim(2005)

간의 역사적 특수성이나 문화적 경로 등은 고려하고 있지 못하며, 이주에 미치는 국가의 역할을 간과한다(Park, 2009)는 점이다.

구조중심이론은 국제노동력의 이동을 세계자본주의의 불균등한 발전으로 야기된다고 이해한다. 특히 거시적 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적 과잉인구의 관점에서, 또는 자본주의 축적 메커니즘으로 인한 세계자본주의 체계로 설명하거나 노동분절론의 관점에서 국제 노동 이주를 후진국의 저임금이나 높은 실업률이 아니라 선진국 노동자들의 기피에 의한 공백을 채우기 위한 노동력 충원정책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Jeon, 2008; Park, 2009). 이런 관점은 대규모 이주를 설명하는 데는 유용할지 모르나 개인과 소규모 집단의 국제이주 등을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단점이 있다.

2) 사회자본론(관계이론)

Jeon(2008)에 따르면 국제 노동력 이주에 대한 행위자 중심이론과 구조중심이론은 국제 노동력 이주가 왜 발생하였는가를 설명하기에는 유용하나, 반면에 특히 어떻게 후속이주가 촉발되며, 이런 이주의 흐름이 영속화되는가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국제적 이동이 감행되는 배경을 행위자나 구조나의 관점에 대해 Seol(2001)은 양자를 통합하는 분석틀로 관계이론을 제시한다. 관계이론은 국제노동력 이동을 구조와 행위자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보면서, 구조와 행위자를 매개하는 사회집단, 조직과 단체, 혹은 사회적 연결망 등에 주목하여 국제이주를 설명하고자 하는 ‘사회자본론’으로 총화된다. 이는 현실적으로 이주현상의 지속과 성공적인 정착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민족 집단과 국가 행위자에 주목하여 이들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으로서, ‘네트워크적 접근’에 해당된다(Jeon, 2008).

네트워크 접근의 가정에 따르면,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미지의 세계에 이주자가 첫발을 내딛기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그러한 잠재적 이주가능성을 현실화시켜주는 행위자의 이주를 촉발시킬 수 있는 어떤 관계망이 필요한데, 사회적 네트워크(가족, 친지, 교회, 동문회, 향우회 등), 이주조직(합법적 브로커, 밀입국조직)이나 인도주의적 비정부기구(NGOs) 등이 일종의 사회적 연결망으로서 역할을 하며 넓은 의미에서 ‘이주 네트워크(migration network)’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네트워크 접근의 중심에 있는 이주자의 사회적 연결망과 조직의 발전 및 사회제도의 참여가 자원 획득에 중요

한 요소가 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어느 국가이든 이주자들이 일정한 수를 넘어서면 이주연결망, 즉 이주자, 선이주자, 비이주자를 연결하는 친족, 친구, 동향인 등의 대인관계가 형성된다. 이러한 이주연결망이 형성되면 이주비용과 위험을 감소시켜 준다. 이로써 개인단위로 이루어지던 이주가 점차 ‘연쇄이주(chain migration)’현상을 낳고, 애당초 이주를 감행한 개인들이 집단 전체의 후속 이주를 구성하는 새로운 구조를 낳게 된다. 이러한 연쇄 이주를 가능하게 하는 이주연결망의 형성은 정부의 통제 밖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는 그 흐름을 통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정 국가들끼리의 연결망 형성은 이들 간의 이주를 영속화시키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 여기서 사회적 연결망이 우리가 흔히 ‘인맥’ 혹은 ‘이주자 네트워크’로 간주하는 사회적 자본인 셈이다.

특히, 출신국 사람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는 이주민이 새로운 커뮤니티에 정착하는 것에 있어, 숙식의 제공, 피난처의 제공, 구직과 취업, 지리적 군집, 특정 고용시장 배치 등을 돕는다. 때문에 이주자들은 친구나 친척, 동포가 지신을 돕고 환영해주는 것을 이주대상국으로 선호한다. 이전의 개척자들이 만들어 놓은 틈새 커뮤니티나 다국적 연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Jeon, 2008).

한 지역에서 글로벌화된 문화상품과 서비스가 존재하고 다양한 민족문화의 전통이 공존하게 되면서, 초국가적 소수민족의 네트워크가 국제적인 수준에서 전개되고 있다. 이주자들은 종교, 가족 및 사회공동체 관계, 경제적 활동, 문화 및 여가생활에서 모국과의 연결 혹은 모국으로부터 이주한 동일 민족과의 네트워크를 유지한다. 하지만, 이러한 이주자 집단에 의해 형성되는 초국가적 소수민족 공동체는 매우 이질적이며, 이주자 주변에서 전개되는 문화적 갈등과 혼성은 상당히 다양한 특징을 보인다(Park, 2007). 이처럼 장소에 고정되던 문화적 속성이 민족을 통해 공간적으로 이동 가능하게 되면서 문화의 탈영역화가 나타나며, 이 과정에서 이주자 및 이주자의 후손은 출신국과 정착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동시에 갖는 다중 정체성(transnational identity) 또는 문화적 혼성성(cultural hybridity)을 갖게 된다(Lee, 2007).

이러한 네트워크 접근은 미시적 구조와 거시적 구조의 통합을 통해 국제노동력의 이주를 설명한다. 과거 남성노동자 중심의 이주가 아니라 최근 여성이 중심이 되어 이주과정을 주도하는 ‘이주의 여성화’의 한 형태인 다문화 가정 여성들에게도 이 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3) 초국가주의적 접근

초국가주의는 ‘한국가 이상에서 활동하는 초국가적 행위자들의 일상생활활동과 이들의 사회, 경제, 정치적 관계 등을 통해 형성되는 사회적 장’으로 정의된다(Basch, Schiller & Blanc, 1994). 이는 오늘날의 국제 이주자들이 형성하는 초국가적인 사회경제적 네트워크와 유연한 문화적 정체성을 설명하는데 중요하게 활용된다(Park, 2007).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초국가적 이주자들의 일상적 삶에서 나타나는 초국가적 실천과 그를 통해 형성, 유지되는 초국가적 연결망, 그리고 그로인해 나타나는 다중적이고 유연한 문화적 정체성이 중요하다(Park, 2009). 초국가주의적 관점을 토대로 한 최근의 연구들은 초국가적 이주자들이 대부분 모국을 떠나 다른 국가에서 생활을 하더라도 모국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들의 활동을 새롭게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국제이주에 대한 관계중심적 이론과 국제이주자들의 초국가적 연결망에 주목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관계중심적 이론이 이주자들의 사회적 연결망이 제공하는 이주비용 감소와 같은 경제적 이점에 주목하고 국가적 이주를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 본다. 하지만 초국가적 접근은 전지구적으로 나타나는 거시경제의 구조적 조건이나 필요성보다 다양한 행위자들이 일상에서 맺는 복잡한 사회, 경제, 정치, 문화적 관계와 이것들의 초국가적 연결을 중시하며, 미시적 수준에서 수행되는 문화와 담론적 실천들의 초국가적 성격과, 그 결과 형성되는 초국가적이고 다중적인 정체성이 국제적 이주와 정착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다(Ko, 2009). 이러한 초국가주의적 접근은 국제이주 뿐만 아니라 국제 이주자들의 적응과 정착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며, 이를 근대국가의 시민권의 개념과 연결시켜 많은 사람들이 초국가적 연결망을 통해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즉 이들의 정체성이 탈국가화하고, 탈영토화하며 이를 재영토화하는 과정에서 유연하고 초국가적인 시민권의 개념으로 대체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국제적 이주에 대한 이론들은 이민을 통한 노동력의 국제적 이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제 결혼을 통한 다문화여성의 이주요인과 이주 후 이들의 한국문화에 동화하거나 본국의 문화를 보존하며 갖게 되는 초국가적이고 다중적인 다문화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서 위에서 살펴본 국제적 노동 이주에 대한 일반이론들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어떤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우리나라로 이주하고, 이주 후에는 어떠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이 사회적 관계망의 특성이 어떠한지를 네트워크 관점에 기반을 둔 사회자본론과 초국가주의적 접근을 통합적으로 적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 사회적 적응과 사회적 지지체계로서의 사회적 네트워크

다문화 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면서 나타나는 사회적 네트워크는 이주여성의 사회적 자본으로서 사회적 지지체계로서 기능하게 된다.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개인의 바람직한 사회적 기능수행을 돕는 자원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Gallup Korea(2007)도 이주여성들의 한국생활에 도움을 주는 이웃의 수가 ‘전혀없다’가 35.8%, 1~3명이 35.0%로 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가 매우 한정적이었다.

Cohen & Syme(1985; E.S. Kim, 2007 재인용)는 사회적 지지란 ‘개인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이라고 정의하고 구조적인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구조적인 측면은 한 개인이 어떤 사회조직망에 통합되어 있는 정도로서 가족, 자국민 친구, 이웃, 동일 종교인 등과의 사회적 접촉의 정도나 활동 참가이며, 기능적 측면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서적 지지, 물질적 지지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E.S. Kim(2007)은 충북지역의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사회 적응에 사회적 지지가 크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가족의 사회적 지지가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면접대상자는 한국남자와 결혼하여 한국의 대도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여성이다. 이주여성 사이에도 출신국가, 경제·사회적 지위에 따라 간과할 수 없는 이질성이 존재한다(Kim *et al.*, 2006). 면접의 대상이 되는 여성들의 출신국에 따라 사회적 연결망의 형성

과 유지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다양한 출신국을 대상으로 하되 우즈벡 등은 문화차이가 크기 문에 (Lee, 2007), 아시아지역으로 제한하였다. 또한 결혼이주 여성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구성하는 이유로 인터

뷰가 가능할 정도의 한국어 능력을 가진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며, 베트남과 중국의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통역을 대동하였다.

면접대상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Interviewee

case		age	education	occupation	religion	way of marriage	ethnicity	families living together	entry
1	wife	32	middle	housewife	buddism	arranged	Vietnam	remarried hus/exwife kids2, own kid 1	2003.10
	hus	48	high	business					
2	wife	25	middle	translator	no	arranged	Vietnam	parents-in-law/hus/kid 1	2006.11
	hus	37	high	employee					
3	wife	32	middle	part time worker	buddism	arranged	Vietnam	hus	2006.9
	hus	47	-	taxi driver					
4	wife	28	high	part time worker	buddism	arranged	Vietnam	mother-in-law/hus/kids 2	2004.12
	hus	38	high	employee					
5	wife	27	middle	part time worker	no	arranged	Vietnam	hus/kids 1	2007.12
	hus	44	college	employee					
6	wife	25	middle	employee	no	arranged	Vietnam	divorce/ live together with Vietmaese	2007.
	hus	39	-	-					
7	wife	24	middle	employee	no	arranged	Vietnam	divorce/ live together with Vietmaese	2009.
	hus	-	-	-					
8	wife	41	high	translator	christianity	cousin	Korean in China	own father/hus/kids 2	1997.11
	hus	47	middle	employee					
9	wife	33	middle	part time worker	no	friend	China	hus/kids 2	2004.6
	hus	40	high	employee					
10	wife	35	college	part time worker	no	family	Mongolia	divorce/ daughter	2000.12
	hus	42	-	employee					
11	wife	45	high	-	unification	religion	Japan	hus/kids 2	1995.
	hus	52	high	-					
12	wife	29	high	housewife	no	arranged	China	hus/kids 1	2007.9
	hus	38	high	employee					
13	wife	31	middle	employee	no	free	China	remarried hus/kids 1	2000.12
	hus	46	high	self-employed					
14	wife	36	college	housewife	catholic	free	Philippine	hus/kids 2	2000.8
	hus	46	high	employee					
15	wife	35	high	chinese instructor	no	family	Korean in China	hus/kids 2	2005.12
	hus	43	junior college	self-employed					
16	wife	43	high	chinese instructor	no	friend	Korean in China	self remarried/hus/kids 1	2006.
	hus	47	high	-					
17	wife	38	college	-	catholic	family	Philippine	hus/kids 2	2000.
	hus	47	middle	employee					
18	wife	27	middle	translator	christian	arranged	Korean in China	hus/kids 1	2006.4
	hus	40	high	employee					

*주) 표 크기문제로 husband → hus로 표기함

2. 연구방법

본격적인 면접에 들어가기 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5명의 다문화가정 여성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이로부터 연구주제에 대한 대략적인 그림을 그리고, 개별 면접을 실시하였다. 18명의 다문화가정 여성들에 대한 개별 인터뷰와 전문가집단에 대한 FGI를 2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전문가집단1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전문가집단2는 구청, 시청의 다문화담당 공무원, 컴퓨터 운영자 등 복지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전문가집단의 인터뷰는 다문화가정 여성들의 사례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사용하였다.

인터뷰 전, 대구시 달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연구목적과 내용에 관한 설명을 하고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면접대상자들을 소개 받았다.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국제결혼으로 입국하였으나 결혼에 실패하고 본국에 귀국하지 않은 채 한국에 남아 경제활동을 지속하면서 본국 출신의 외국인 근로자와 동거하고 있는 사례를 면접참여자를 통해 소개받는 눈덩이 표집을 병행하였다. 이 사례는 다문화가정 여성이 같은 출신국의 이주노동자와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이것이 소수민족집단 공동체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단초를 얻고자 면접을 시행하였다. 이후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추가로 결혼이주 여성을 소개받아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국제결혼과정은 종교 특히 통일교를 통한 결혼이 사례수가 적어 분석에서 제외하고 결혼중개업자,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한 결혼, 연애결혼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한국에 결혼이주한 후의 사회적 관계망은 구조적 틀안에 사회적 관계망의 기능을 분석하였다. 또 다문화여성 사회적 네트워크의 초국가적 특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남성과 국제결혼을 경험한 가족과 친지를 통해 선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결혼방식도 이미 잘 알고 있었다. 이들은 여러 번의 맞선을 경험하고 한국남성의 일방적인 선택에 대해서도 큰 거부감이 없이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 이들은 결혼중개업자가 주선한 단체만남의 장소에서 미리 대기해 있다가 한국남자가 선택해주면 하루 정도 데이트를 하고 단체로 결혼식을 올렸다. 배우자에 대한 정보도 결혼중개업소에서 제공한 서류를 통해 알 수 있을 뿐,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것은 단체로 잠시 만난 것이 전부였다. 베트남 여성과 결혼중개업자를 통해 결혼한 한국 남성들은 거의 결혼이주 여성에 비해 나이가 10세 이상 많았다. 또 그들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지위가 그리 높지 않았고 재혼인 경우도 많았다.

면접대상자 중 중국에서 온 결혼이민자 여성들의 일부도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하였다. 이들은 자신의 결혼을 통해 친정을 부양하겠다는 등의 경제적 동기는 베트남의 경우보다는 강하지 않았다.

중개업체를 통해서 베트남에서...그날 만나고 다음 날에 결혼했어요...만나다가 한 시간 안에나 삼십분 안에 결정해서 빨리빨리 해야 되요...법적으로 합법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남자는 결혼하면 돈을 내야하니깐, 그리고 그 돈은 신부한테 다 주는 거 아니에요.(사례2, 베트남, 25세)

남편은 중개업체 통해서 베트남 와서 자기는 동네 아는 사람이 소개를 했고, 호치민에 가서 거기서 있다가 남편과 만나게 되었어요...동네에 사는 아줌마가 예전부터 아는 사이였어요. 그 아줌마가 베트남 여성들 소개해주고 외국남자들하고 결혼하게 해 주는 아줌마예요.(사례3, 베트남, 32세)

조선족이 하는 소개소에서 만났어요...언니가 한국에 시집을 와서 소개를 받게 되었어요...소개를 받고 한 달 정도 후에 결혼 결정 했어요...남편이 한국으로 가서 통화하면서 지냈어요...남편은 중국에서 두 번 정도 만났어요.(사례12, 중국, 29세)

IV. 결과분석과 해석

1. 국제결혼 과정

1) 결혼중개업자를 통한 결혼

베트남출신 다문화가정 여성들의 대부분은 결혼중개업자를 통해 결혼하였고, 중국출신 다문화가정 여성들은 일부가 결혼중개업자를 통해 결혼하였다. 이들은 이미 한국

다문화가정 여성들의 남편들 중에는 시부모와 동행하여 배우자를 선택한 경우도 발견된다. 한국인 남성이 부모에게 의존적이거나 무능한 경우 시부모가 며느리 선택에 깊숙이 관여한다. 한국남성이 여성을 선택하면 하루 정도 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이때 결혼식에는 다문화가정 여성의 가족이 참석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남편이 한국으

로 돌아간 후에 자신의 가족들에게 알리는 경우도 있었다. 그 이유는 결혼이 결정되면 결혼식을 치르기까지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는데, 그 친정부모의 거주지가 시골인 경우가 많고, 통신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대학교 공부하고 싶으면, 우리 언니도 대학교 포기해야 되고 남동생 둘도 공부 못하니깐 내가 시집가야겠다고 결정 했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선보는데 거기 같이 갔어요.(사례4, 베트남, 28세)

중국에서 시어머니랑 남편이 같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끼리 만났어요. 두 가족끼리...그 당시에는 가족들이 더 좋아해서 한번 만나고 가기로 결정을 해서 바로 서류하고 4월 달에 결혼 했어요.(사례18, 조선족, 27세)

결혼에 대한 망설임과 혼란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경제적 안정과 이를 통해 본국의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 여성들은 자존심이 강하고, 생활력이 매우 강하여 결혼 후에도 강한 취업동기를 가지고 있었다. 결혼 결정에 경제적 동기가 강할수록 한국에서 취업하기를 희망하고 아이를 가지는 것을 꺼려하여 자녀를 갖고자 하였던 남편과 결국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상당수는 이미 한류를 통해 한국생활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고, 한국남성과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고, 이러한 꿈이 본국보다 잘사는 한국에서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베트남 남성들이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고 게으르다고 생각하여 한국남성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제 남편을 처음 봤을 때는...불안하고 했죠. 처음 결정을 해야 하는 시간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만약에 이 남자와 결혼하면 한국에서 잘 살 수 있는지 그것도 걱정을 했죠...제가 솔직히 말하면, 제가 한국남자와 결혼하면 물론 그 남자와 잘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먼저 했고, 그 다음에는 한국생활에서 내가 번 돈으로 내가 동생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라서.(사례2, 베트남, 25세)

친정애다가 돈을 송금해야만 했어요...베트남에 있는 오빠가 일 안해서...베트남여성들이 자존심 강해요...스스로 일하면서 돈 벌고 싶어요.(사례5, 베트남, 27세)

한국남자랑 결혼하면 앞으로 미래도 있고, 한국에 가면 송금이나 이런 걸 보내주니깐...저희 부모님도

저보고 결혼을 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남자친구 있었어요...부모님은...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일 안하고 매일 놀기만 하니깐...베트남 나라보다 한국 나라는 더 발전하고 더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 남자와 결혼하고 한국에 와서 남편이 도와주거나, 한국 생활하면서 돈을 벌 수 있고 그 돈을 모아서 베트남 부모님을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깐 더 많이 결혼을 해요.(사례2, 베트남, 25세)

2) 사회적 네트워크(가족, 친지, 선이주자들)를 통한 결혼

결혼중개업소는 아니지만 결혼을 목적으로 지인이나 친척의 소개로 만난 경우는 연애결혼과 결혼중개업자를 통한 결혼의 중간적인 특성을 지닌다. 중국, 몽고, 필리핀에서 온 결혼이주 여성들 중 일부는 자유롭게 연애를 한 것은 아니지만 가족이나 친지의 소개로 결혼을 전제로 만나 짧은 시간 내에 결혼을 결정하는 경우도 많았다. 면접대상자 중에 일부 중국여성들과 몽고여성은 한국에서 일 자리에 먼저 취업해 있었거나 산업연수 때문에 입국하였다가 한국지인의 소개로 결혼에 성공하였다.

친구 소개로 만났어요...처음에 여기 연수하러 왔어요...같은 회사 같은 기숙사에 있는 중국친구요...지금 남편하고 친구남편하고 고등학교 동창, 둘이 친구 사이예요.(사례9, 중국, 33세)

저는 대학교 끝나고 학교에서 모범학생들에게 한국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있어서 오게 되었어요...연수차 왔다가 남편의 누나에게서 소개 받아서 만나게 되었습니다.(사례10, 몽골, 35세)

신랑은 우리 언니 형부가 잘 아는 사람이예요. 친구예요...마음도 좋고 이래서 신랑이 사람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소개시켜줬어요. 우리 엄마도 한번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사례16, 조선족, 35세)

우리 고모가 좋은 총각 있다고 해서 소개로 만났어요...첫 인상이 좀 착해 보여요...12월 달에 설날 때문에 여기 왔어요. 근데 (고모가 저한테)비밀로 했어요...남편하고 3일 만났고 결혼했어요.(사례17, 필리핀, 38세)

처음에 한국에 올 생각은 없었는데, 저희 친숙모가 아는 사람 있다고 해서 원래는 자기 친구 조카를 소개시켜 줄려고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사진을 보니깐 괜찮아 보이네 해서, 저한테 사진을 보여주면서 만나볼래? 라고 해서 만나게 되었어요.(사례18, 조선족, 27세)

필리핀에서 고등학교 교사이던 다문화여성(사례17)은 고모가 소개해준 한국남성과 한 두 번 만나고 바로 결혼을 결정하였다. 비록 남편이 중졸이지만 집안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느껴졌고, 이미 필리핀에서 결혼적령기를 지나고 있어 남편과 결혼하였다.

중국에서 온 결혼이민자 여성들의 일부는 친지나 친척 등의 소개로 남편이나 시모 등 가족이 중국을 방문하여 결혼으로 연결된 경우가 많았다. 한 조선족 결혼이주 여성은 숙모가 중국으로 남편 될 사람과 시모가 함께 방문하여 선을 보고 결혼을 결정하였다. 결혼 후에 그녀는 그녀의 가족들을 모두 한국에서 초청하였고, 부모님이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니 오히려 친정가족들의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편이었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선택했다기보다 한국을 더 나은 기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의 땅으로 여기고 있었다.

제가 대학교를 가려고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제 성격에 유아 쪽으로 좀 많이 맞거든요. 지금도 어린이집에서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일 하고 싶어요.(사례18, 조선족, 27세)

한국의 시설이나 복지 서비스 이런 것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적든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제가 공부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지만, 중국에서는 그런 게 안 되거든요.(사례18, 조선족, 27세)

그러나 이런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소개를 받았다고 해도 본인이 아들 하나를 둔 재혼여성인 조선족 여성은 남편을 소개해준 같은 동네 출신의 언니에게 소개비를 줄 것을 요구받고 소개비를 지불하였다. 지인을 통해 소개를 받더라도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지불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였다.

소개해주면 소개비 조금씩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주는데 나도 줄게, 라고 했어요.(사례15, 조선족, 35세)

이들에게 한국은 미지의 세계는 아니었다. 본국에서 한국으로 결혼한 친구나 친척들을 통해 이미 한국인과의 결혼생활과 한국생활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한국인과의 결혼을 선택한 경우가 많았다. 즉 결혼 이주여성들의 결혼이 '연쇄적 이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저는 재혼이고 신랑은 초혼이에요.~우리 할아버

지가 한국에서 살다가 중국으로 가니깐 형제가 없잖아요.~중국에서 의형제한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시요. 이 할아버지 손녀가~한국으로 시집을 왔어요.~그 언니가 소개를 해 줘서 만났어요.(사례15, 조선족, 35세)

저희 이모 쪽에는 한국에서 결혼한 친척이 많아요. 큰 이모, 둘째 이모 거의 언니들 시집을 갔고 그래서 한국에는 친척이 많아요.(사례18, 조선족, 27세)

결혼하기 전에 아는 동생이 한국 사람과 결혼을 해서 그 집에 방문을 했어요. 그 당시 한국 신랑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생각을 했어요.(사례3, 베트남, 32세)

3) 연애결혼

한국남성과 결혼 전에 직장을 같이 다녔거나 지인의 소개로 만나 데이트를 하는 등 자유연애의 과정을 거친 면접자들은 어느 정도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후 결혼한다. oo전자 중국공장에 다니던 중국에서 온 결혼 이주여성은 남편이 출장길에 통역하는 사람에게 괜찮은 사람을 소개시켜달라고 부탁해서 본인은 소개인지 모르고 만났다고 한다. 남편을 3년 정도 출장길에 만나고 바로 결혼 프로포즈를 받았다. 중국부모의 반대가 심해 임신 후에 부모의 허락을 받고 결혼하였다. 이 여성의 언니 4명은 모두 같은 마을 사람과 결혼하여 본인은 좀 멀리 결혼할까하는 생각이 있었다. 한국어도 전혀 못했지만 열심히 일하면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 결혼을 결정하였다.

처음에 중국에서 oo전자에서 만났어요.~1년 정도 연애 했어요.~남편이 사실 결혼하고 싶어서 친구한테 괜찮은 여자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고 얘기 했죠. 그래서 괜찮은 사람 있다고 만나보라고 하길래 만났어요.~3번째 만나고 난 뒤에 결혼하자고 했어요.(사례13, 중국, 31세)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필리핀에서 온 결혼 이민여성은 2000년에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하여 2년 뒤 지금의 남편을 회사에서 만나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결정하였으나. 시부모와 친정모가 모두 조금씩 반대했다. 결혼 전에는 필리핀에 돈도 부치고, 자기 집도 구입하였지만 결혼 후에 임신을 한 후로 일을 못해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고 있었다.

노동자 연수생(산업 연수생)으로 왔는데 한 2년 뒤에 남편을 회사에서 만났어요. 처음에는 친구사이로

한 1년 정도 지냈어요. 만나서 보니까 마음이 착해서 만났어요. 제가 원래 남자친구가 있었거든요. 남자친구 많이 좋아했는데 도박에 빠져서 그때 지금 남편한테 이야기 했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이야기를 못했었는데, 지금 남편한테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몇 달 뒤에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 그 때부터 제 마음이 남편한테 많이 갔어요. 8개월 사귀었어요. 제가 먼저 결혼하자고 했어요.(사례14, 필리핀, 36세)

다문화가정 여성이 연애결혼을 하는 경우에는 친정집안의 반대도 있고, 결혼 후에 경제적 지원에 대한 부담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즉 결혼이주의 동기 중에 경제적 동기가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다.

2. 사회적 관계망의 형성과 특성

1) 본국의 가족, 본국출신자들과의 사회적 관계망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이를 해결하고 도와줄 수 있는 친구나 이웃과 같은 사회적 지지세력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는 삶의 중요한 자원이 된다. 대부분의 다문화 가정 여성들은 본국의 가족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한국에서도 1차적으로 본국에서 온 가족들이나 친구들과의 교류를 통해 정서적인 안정을 꾀하고 있었다. 이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하고, 가끔씩, 혹은 자주 만나면서 친밀성을 나누고 있었다. 베트남에서 온 다문화 가정 여성들은 언니나 동생 등의 가족, 친척들, 동네언니 등 본국에서 친하게 지내던 여성들이 이미 한국에서 정착하여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여형제들과 어머니가 모두 한국남성과 결혼하여 가족전체가 한국에서 거주하는 경우도 있었다. 중국에서 이주한 조선족 여성의 경우에는 결혼 후에 부모나 가족들을 초청하여 한국에 거주하며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이들은 한국 내에서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일상을 나눌 정도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가족들끼리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한국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다.

저 처음에 한국말 몰랐는데 집에 와서 심심하고 매일 텔레비전보고, 근처 언니 집에 놀러가고 했어요. 언니가 3명인데요. 3명 모두 한국에 있어요. 춘천, 서

울. 한 달에 한번 계모임 해요. 큰집에서 만나요.(사례5, 베트남, 27세)

가족 4명하고 친정아버지하고 한국에 같이 있어요. 남동생도 여기 있어요. 남동생 부부도 있고 애기도 낳았어요.(사례8, 조선족, 41세)

언니랑, 오빠 식구들이랑은 한 달에 한번 보기도 힘들어요. 전화는 자주 하는 편이에요. 명절에는 오빠도 서울에서 내려오고 친정엄마도 수시로 내려오고 자주 만나는 편이죠. 추석이나 명절에 만나고, 조카들도 만나서 같이 놀고 해요.(사례16, 조선족, 35세)

지금 가족이 전부 여기 있고, 시댁가족들도 시아주버님, 시누이가 3명 계시고. 그리고 복지관에도 나오고 그리고 이웃들.. 희망근로로 아는 사람도 있고, 친엄마가 한국생활에 도움 제일 많이 줬어요.(사례5, 베트남, 27세)

출신국에서부터 알고 지낸 지인들이 가까이 없는 경우에도 시장을 다니면서, 혹은 친구의 친구 등으로 연결되는 것과 같이 일상에서, 또 복지관 등에서 만난 출신국이 같은 다문화가정 여성들과 바로 친분을 쌓고 연락을 취하는 등의 교류가 활발하였다. 중국 출신의 한 다문화가정 여성은 거의 매일 본국출신 친구들과 만나고, 심지어 남자친구들도 집에 불러서 같이 술 마시고 마작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여성의 남편은 이를 허용하는 편이었는데 본인이 오랫동안 그런 관계를 유지하다보니 요즘은 재미가 떨어져서 자제하고 있다고 한다.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갑자기 병원에 갈 일이 생겼을 때 등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에도 한국가족에게 먼저 손을 내밀기보다 본국출신 이주여성에게 도움을 청하는 등 동일 출신국의 다문화가정 여성들은 서로에게 사회적 자본으로서 충분히 기능하고 있었다.

베트남친구 다섯 명 있어요. 시장 갔다가 만났어요. 그 친구가 한국말을 잘했어요. 그래서 아프거나 할 때 병원 같이 가고 했어요.(사례5, 베트남, 27세)

친구들 자주 만나요. 센터에 만난 친구들이요. 복지관은 3번 가요. 거의 매일 나와서 친구들을 만나고 다녀요.(사례12, 중국, 29세)

중국친구들 있어요. 북경에서 대사관 승낙 받아야 하니깐 거기서 만났어요. 제가 한 달 먼저 한국에 왔는데 제가 아기 낳을 때 그 친구도 한국에 왔어요. 그 친구랑 자주는 못 만나요.(사례13, 중국, 31세)

시장가서 알고, 친구끼리 친구 집에 가서 만나서 알게 되요. 친구들끼리 소개해주고. 근데 그 친구들은 한국 온지 얼마 안 되서 한국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은행이나 가서 통장이나 카드 만드는 것, 베트남에 송금하는 거 도와주고, 병원. 그런 거 도와주고. 동사무소에서 예방 접종하는 것도 도와주고 해요.(사례1, 베트남, 32세)

모르는 게 있을 때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옛날에는 필리핀 친구들이 일 안했는데, 요즘은 다 일 해요. 필리핀 친구들 하고는 일주일에 한번 만나요. 주로 식당에서 만나요.(사례14, 필리핀, 36세)

다문화 가정 여성들은 주로 집에서 만남을 가졌다. 보통 한국에서의 결혼생활에 이미 적응한 선배 이주여성의 가정이나, 남편과 단둘이 살아서 낮에는 아무도 없는 다문화가정 여성의 집, 혹은 시부모나 남편의 배려로 방문이 가능한 친구의 집에서 만났다. 거기서 출신국의 음식을 해먹고, 육아정보나 가족이야기 등을 나누며 시간을 보내는 일이 가장 보편적이었다. 가끔씩 본국의 노래를 할 수 있는 노래방을 가거나, 쇼핑을 같이 가거나, 출신국 전문음식점에서 음식을 사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는 동네에 사는 베트남 친구들하고 가까이 지내요. "동네에서 만나는 친구들 많아요. 2주에 한번 씩 만나요. 7명 정도 모여요. 베트남 음식도 먹고 놀고, 베트남 이야기나 한국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베트남 음악이나 드라마 그런 것을 보고해요. 주로 친구 집에서 만나요. 같이 노래방도 가고, 시장도 가고 그래요.(사례3, 베트남, 32세)

주로 중국 친구 많았어요. "수다도 떨고 음식도 만 들었어요. 주로 친구 집에서 만나요. 시어머니는 낮에 일가요. 그래서 없어요.(사례9, 중국, 33세)

한국친구도 있고 중국친구도 있어요. "베트남 친구들도 있고"만날 때는 다들 중간쯤으로 해서 봐요. 집하고 중간쯤에서 만나서 식당가서 점심도 같이 먹고, 커피한잔 하고, 애기들도 노는 공간에서 놀게 하고, 보통 주말에 많이 만나죠.(사례16, 조선족, 35세)

베트남 여성들에 비해 조선족 여성들은 외형상 내국인과 차이가 없고 언어소통에 어려움이 없어서 비교적 같은 조선족 여성끼리 어울리는 필요성이 낮아서인지 다문화 가정 여성들 간의 교류빈도가 낮은 편이었다. 이러한 출신국 다문화 여성들로 구성된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이주여성으로서의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기도 하며, 한국가정에서 억제된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데 제가 이래보면 조선족들은 잘 안모여요. "그냥 말이 통하니까 어려움이 없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사례8, 조선족, 41세)

다문화가정 여성들은 대부분 출신국이 같은 다문화가정 여성들과 주로 교류하고 있었다. 복지관이나 센터를 통해 다른 출신국의 다문화가정 여성들을 알게 되더라도 같은 출신국의 다문화가정 여성끼리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베트남과 캄보디아, 태국과 같이 인근국가 출신들은 문화적 배경이 유사하여 간혹 함께 어울리며 출신국의 음식을 나누어 먹거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출신 여성들에 대해서는 자국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많고, 다른 출신국가 여성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가까이 하기 어렵다고 느끼고 있었다.

다문화지원센터는 애기 북스타트 하면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기 오신 분들하고 특히 베트남 애들하고도 좀 친하고 보통 우리 속사정까지 다 아는 친구는 중국친구. 조선족이에요. "한족은 속마음 털어 놓기까지는 어려워요. "개들은 말이 안 통하니깐.(사례15, 조선족, 35세)

필리핀 친구들하고는 가끔씩 만나서 놀고 그래요. "집에서 필리핀 음식해서 먹고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거 해요. 주로 필리핀 친구 집에서 모여요.(사례18, 조선족, 27세)

이렇듯 대부분의 다문화가정 여성들은 동일한 출신국의 여성들끼리만 긴밀한 친구관계를 유지한다. 대부분 동일국가 출신이 아니면 쉽게 친구로 발전하기 어려웠다. 친구관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결혼기간이나 다른 요인들보다 동질적인 문화배경인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도인 일본여성도 매주 일요일 통일교 예배당에 가서 본국출신 다문화가정 여성들과 만나 일본음식점을 가는 등 교류를 하는 것을 큰 낙으로 생각하였다. 베트남 여성들 중에는 불교를 믿는 여성들이 많았는데 초기에는 절에 가지 못하다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알게 된 친구들과 같이 베트남 여성들이 많이 가는 절을 소개받아서 가끔씩 간다고 하였다. 필리핀에서 온 다문화여성은 식당에서 본국 출신 다문화여성들과 1주일에 한번 씩 만나 교류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다문화여성과 함께 종교생활을 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반면 중국출신 다문화여성들이 종교가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 몇몇 조선족 출신 다문화가정 여성들은 종교를 기독교로 개종하여 시택식구가

지 선교로 개종시킬 정도로 적극적으로 종교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본국출신의 남성들과의 교류는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상당히 타부시하며 경계하고 있었다. 하지만 면접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들이 아는 몇몇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같은 출신국의 산업체 근로자와 만나서 술도 같이 어울려서 마시고, 마작이나 노래방을 가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한 사례를 소개받고자 하였으나 결국 당사자가 응하지 않아 면접에 실패하였다.

대구에서 친구들이랑 어울리다보면 산업연수생으로 온 베트남 남자랑 베트남 식당에서 일 할 때 가끔씩 봤지만, 대화는 하지 않았어요. “예전에 어떤 베트남 남자가 전화왔어요. 그냥 이야기 하자고 전화왔어요. 그래서 남편이 안 좋아해서..하기가 싫었어요.(사례3, 베트남, 32세)

중국 남자는 잘 없어요. 있어도 여기 와서 일 하는 사람. 우리는 주로 집에 있어서 밖에 안 나가니깐 그런 사람 잘 몰라요.(사례9, 중국, 33세)

한국에 정착한 지 시간이 지나고, 한국사회에 적극적으로 동화하고 있는 한 베트남 다문화가정 여성은 다른 다문화가정 여성이 어려움이 처했을 때 도와주는 역할을 기꺼이 수행하며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남편과 의사소통이 안 되어 다투는 등 어려운 처지에 있는 베트남 여성들이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병원 응급실 등에 가야하는 여성들이 도움을 청하면 밤11시 이후에도 시모의 허락을 받고 기꺼이 도와준다고 한다. 공적인 기관의 도움보다는 가까이 있는 출신국이 같은 다문화가정 여성에게 도움의 손길을 청하는 일이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금 한국말을 잘하니깐, 베트남에서 온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을 도와줘야하는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친구들 말도 통역도 해줘야 되고, “센터에 나와서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것 말고, 밤에 갑자기 전화가 오거나 그런 일도 있어요.(사례2, 베트남, 25세)

도움을 받은 친구들이 많아요. “애기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걸로 가면 의사 선생님이 저를 알잖아요. 정우엄마라고 의사선생님이 불러요. 그러면 친구라고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해요. “매일 가끔씩 통역해 줘요. “그러면 그거 때문에 나가야되는 일도 생길 수 있잖아요. “우리 남편이 말 안 해요. 제가 나가는 것도 말 안하

고. 시어머니한테 이야기 하죠. “저 뭐든지 하면 거짓말 안 해요. “서로 계속 만나는 친구들은 동네친구는 제일 많아요.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뭐 이런 곳 다니면 만나면 언니~어디 살아요? 이러면 거의 가까우면 전화번호도 주고, 집 가까우니깐 자주 공원에서 나와서 이야기 도하고 해요.(사례4, 베트남, 28세)

다문화가정 여성들의 교류는 극히 사적인 수준에서 애정과 친밀성의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대부분이 비정기적으로 시간이 될 때 만나서 사적인 시간을 보내는 수준이다. 일부가 정기적으로 계의 형태로 만나며 친목도모와 함께 상호부조의 형태로 경제적인 저축을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공적인 형태의 조직으로 발전된 사례는 없었다.

이렇듯 아직까지는 다문화가정 여성들의 민족집단으로서의 특징은 매우 사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무너져가는 한국의 가부장적 핵가족을 연장시켜줄 인적자원으로 간주하고, 그들이 다문화가정은 꾸릴 수 있을지언정 결코 소수자 민족 집단으로 형성되지 못하도록 하는 세력이 작용하고 있는 (H.J.Kim, 2007)한 이들이 소수자 민족 집단으로서 공적인 성장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하나의 가능성은 사이버 공간상에 세워지고 있는 이주자들의 사이버 공동체들이다. ‘출신국별 다문화가정 여성들의 카페나 커뮤니티’, ‘이주민과 실무자를 위한 네트워크’, ‘다문화가정과 이주노동자 방송국’ 등은 소수 민족 집단에게 실존적으로 안온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새 소수자의 공동체들이 한국사회 전체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J.R.Choi, 2009).

이주여성들도 서로 간 의사소통 수단으로 핸드폰을 이용하고 있으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인터넷이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이주여성들은 출신국에서는 컴퓨터를 사용한 경험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인터넷을 통해 출신국인들로 구성된 카페나 채팅, 이메일 등을 이용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빠르게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있었다.

모르는 게 있으면 가끔씩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아니면 여기에서 한국어 선생한테 물어보고 해요.(사례 13, 중국, 31세)

필리핀에 있는 언니한테 상담하거나 도움을 받아요. 인터넷해서요.(사례14, 필리핀, 36세)

인터넷 카페는 중국 사이트를 많이 사용해요. 제가 찾고 싶거나 그러면 주로 인터넷으로 많이 하거든요. 조선족 사람들끼리 모여서 운영하는 카페나 이런 것은 안 해봤어요.(사례18, 조선족, 27세)

2) 한국가족, 이웃/한국인과의 사회적 관계망

다문화가정 여성들의 한국의 가족들과의 관계양상은 매우 다양하였다. 시부모와 동거하며 남편보다 시부모를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경우도 있었으나, 많은 경우에 고부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시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에 분가를 원하는 경우도 많았다. 남편의 형제들과의 관계도 다양하였다. 본인이 판머느리로서 집안의 제사를 주도하며 시댁식구들과의 관계를 주도하는 경우부터, 장남이 아닌 남편이 결혼 전에 시부모와 동거하였기 때문에 결혼 후에도 제사를 지내고 시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시부모 뿐 아니라 시누이 등 시댁식구들의 간섭을 심하게 받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남편의 한국가족과는 거의 교류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부부관계, 시댁과의 문제는 본 연구의 주제에서 벗어나 있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남편의 형제는 4명이예요. 시누이 말고 다른 형제들은 안 만나요. 그 시아버지도 제사 때 만나고 그 다음에 안 만났어요. 한국에 와서 살림이나 이런 것 어려울 때 시어머니랑 시누이들이 같이 도와주니깐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가사노동하는 것도 괜찮아요.(사례3, 베트남, 32세)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보통 남편 형제분들한테 도움을 청해요.(사례8, 조선족, 41세)

남편은 형제가 위에 형 하나 있고, 누나 하나 있고, 남동생 하나 있고, 여동생 하나 있어요. 어려움이 처했을 때 남편 형제들이 안 도와줬어요. 그 때 다들 바빴나 봐요. 전화나 연락은 하긴 하는데 잘 몰라요. 멀리 사니까(사례13, 중국, 31세)

남편 형제나 친척들은 명절 때 만나요.(사례14, 필리핀, 36세)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면 시숙한테 전화하고 시누한테 전화하고. 그러면 ~ 다 해결해줘요.(사례15, 조선족, 35세)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너무 좋았어요. 친자식처럼 대해주고 좋았어요.(사례16, 조선족, 35세)

시부모님은 안 계시고, 아주버님이랑. 집이 2층이거든요. 우리는 2층, 형님은 1층(사례17, 필리핀, 38세)

대부분의 다문화가정 여성들은 남편과 남편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자주 만나거나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한국 친구들이 별로 없었다. 결혼생활이 지속되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어가 능숙하지 못해서 한국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가끔 남편친구들 모임에도 참석을 하지만 남편친구 중에도 다문화가정 여성과 결혼한 경우라면 몰라도 한국인 친구부인들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게 느꼈다.

지금은 한국친구들은 되게 많이 없어요. 그냥 친척들하고 여기계신 선생님들..(사례2, 베트남, 25세)

한국사람 없어요. 만나는 한국 사람도.. 한 3명이에요.(사례5, 베트남, 27세)

한국 친구들은 많지 않아요. 주로 여기 복지관이나 학교 친구들이예요.(사례14, 필리핀, 36세)

한국 사람들은 모임이 많잖아요. 남편이 같이 데리고 가 줘요. 생일이나 친구들 모임 정기적으로 만나는데 모임 같은 거도 있어요.(사례14, 필리핀, 36세)

남편 친구 분들하고 자주 만나요. 친구들 계하는 데 자주 따라갔어요.(사례15, 조선족, 35세)

또 자녀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의 자모회나 선생님과의 면담도 한국어능력 때문에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어 적극적으로 참석하기 어려웠다. 면접대상자 중 조선족 다문화가정 여성은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한국인들과의 모임에서 소외당하거나 걸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이들 운동회에 가면 본인이 주도하여 비슷한 처지의 다문화 여성들을 모아서 함께 점심을 먹는 등 주변적인 역할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였다. 면접자들은 의사소통만 원활하게 된다면 한국 사람들과도 적극적인 교류를 하고 사회활동도 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한국 사람들은 친한 사람 거의 없어요. 유치원 학부모하고는 개인적으로 연락하거나 그렇지 않아요.(사례18, 조선족, 27세)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한국사람과 교제하기 어려운 점으로 밖에 나가면 낯선 사람들이 “남편은 몇 살이야?”, “왜 어린 나이에 한국에 시집왔어?”, “남편은 뭐해?” 등 사적인 부분까지 지나치게 관심을 보여 당황하게 만드는 경우도 많은 것을 꼽고 있다. 또 대부분 돈 때문에 한국 남성과 결혼했다는 선입견을 부담스러워 하였다. 조선족의 경우에도 외모로는 차이를 느끼지 못하다가도 말씨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면 “이런 것 중국에도 있어?”, “이런 것 먹어보았어?” 등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받아들였다. 그러나 어떤 면으로는 모르는 사람들도 아이들에게 과자나 장난감을 사주는 등 출신국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친절함에 고마워하기도 하였다.

‘왜 여기 왔느냐’고 자꾸 물어봐요. “너무 살기 힘들지”라고 자꾸 그래서 너무 속상했어요. “과일이 있으면 과일 많이 먹어라면서 자꾸 먹여요. “나라가 가난해서 여기 시집왔다고 그런 거 많았어요.(사례16, 조선족, 35세)

몇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한국인과의 각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였다. 필리핀에서 온 결혼이주여성은 필리핀 출신 여성들과 관계를 맺기보다 오히려 한국친구들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고 하였다.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고민을 털어놓을 정도이고, 제사음식을 만들고 시댁과의 관계나 문화차이에 대해 조언을 듣는다고 한다.

아파트에서 다른 아줌마들과 놀러도 자주 가요. “아파트에서 이웃 아줌마들과 우리 아기랑 놀아주고 그러면서 친해졌어요. “이웃집에 아홉 살 큰 애가 봐줬어요. “한국 친구들도 있어요. “일주일에 3~4번 정도 만나요. “서로 집에도 놀러가고 그래요. “(사례12, 중국, 29세)

주로 우리 동네 아줌마들이랑 친해요. “저는 중국 만두 만들 때는 돌려주고요. 아줌마들은 여름철에는 콩국수나 떡 만들 때는 저한테 좀 갖다 주고요. “이웃들과 특별히 계모임 같은 거는 없어요.(사례16, 조선족, 35세)

여기 동네. 진짜 친한 언니 있어요. “애들 필요한 거 사러 문구점 갔는데, 그 언니가 어디서 왔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몇 번 초대했어요. 같이 음식먹자고. 지금까지도 같이 지내요. “동네 언니들이랑 자물 방법 봉사해요.(사례17, 필리핀, 38세)

3) 행정기관, 사회적 기관이나 사회참여

이주여성들이 친한 한국인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주로 한국어 강사, 방문교육 교사, 여성단체 봉사자, 남편 친구의 부인, 일하면서 만난 한국인인 경우가 대다수였다. 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지자체와 복지기관, 교회, 여성단체에서 실시하는 한국어 교실, 문화적응교실, 취업교실, 문화탐방 등이다. 이중 한국어교실 외에는 비정기적으로 제공되는 일회성 특별프로그램인 경우가 많다.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참석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간이 없고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족의 태도나 이주여성의 의지도 큰 변수이다.

다문화가정의 여성들은 처음 한국에 이주한 후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먼저 정착한 지인들이나 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을 통해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기관, 종교단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소개받는다.

한국에 온 지 6개월 후에 다문화. “센터는 남편이 소개해줬어요.(사례3, 베트남, 32세)

한글교실 “복지관에서 공부했고 아줌마들하고 말하는 것도 처음이니까 몰랐으니깐, 거기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해주거나 행동으로 하는 것을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성서복지관에서도 공부했어요. 처음에 계명대학교에서 1년 정도 공부했어요. “방문교육 선생님이 있고. “그때 거기 다 집으로 전화했어요. “동사무소. “동사무소에 명단 다 있다고. “한국어 배우고 한국 요리도 배웠어요. “한국의 꽃꽂이도 배웠어요. “영남대학교에서 다문화가정리더스쿨 “영남대학교 “법무부 “한국외국어대법대(사례4, 베트남, 28세)

우리 시어머니 나가서 옆에 친구들한테 이야기 들어서 복지관에서 한국어 배우는 거 공짜라고. 그래서 시어머니가 내 데리고 갔었어요. “한국어 배우는 거나 방송통신 고등학교 입학하는거 “남편이 항상 적극적으로 “이번에도 동사무소 가서 학습지, 요가교실 하라고 저녁에 7:20~8:20까지 하는데 저는 가기 싫었어요. 근데 남편이 가요가요. (사례9, 중국, 33세)

2007년에 결혼하고 한국에 와서 “다문화센터랑 성서 사회복지관에서 한국말 배웠어요.(사례12, 중국, 29세)

컴퓨터 교실 참석했고, 운전면허 학원 “한국어 능력시험 쳤고요. “엄마들 얘기 키우는 방법(사례16, 조선족, 35세)

제가 와서 이틀 후에 저희 어머니님 복지관에 찾아오셨거든요. 공부하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복지관에 왔어요.(사례18, 조선족, 27세)

그러나 남편이나 시댁의 편견과 다문화가정 여성 사이에는 상호갈등적인 요소도 많이 발견된다. 남편이나 시댁은 다문화가정 여성을 밖으로 교육을 보내면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고 잘못된 정보교환으로 인해 가출이나 도주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외부출입을 일체 제한하거나 억압하게 된다. 그러나 이주여성에게는 한국어교실에 참여하는 것이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한국어교실에 나가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갈등의 요소가 되며, 갈등과 타협을 거치게 된다. 주위친구들의 외국인 며느리가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서서히 외출이나 한국어 교육을 수강하는 경우도 있었다.

처음 한국 왔을 때, 어머니가 같이 살았어요. 한국어 공부하고 싶었는데, 밖에 나가지만~ 베트남사람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냥 집에 있어. 나 한국어공부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버스 아는데 버스 돈 아껴야 돼. 밖에 맛있는 것 사고 그냥 집에 있어요. 어머니께서 같은 베트남친구랑 만나면 안 좋다고. 시장 못 가게 하셨어요.(사례5, 베트남, 27세)

처음부터 한국남성과의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경제적 목적이었던 여성의 경우는 한국어교육을 받기보다 바로 취업을 원하는 경우도 많았다. 일부 이주여성들은 한국어를 배우는 것보다 일자리를 우선 구하는 것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받지 못하고, 가족들과 공장의 한국인들에게 약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를 습득하는 정도다. 때문에 이들은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여 한국생활 적응에 또 다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대부분이 한국어 능력을 한국문화 적응에 가장 우선적인 요소로 꼽고 있었다.

한편 이주여성들이 한국인을 위한 사회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주여성들의 사회참여는 식당이나 영세한 규모의 공장에 비숙련공으로서 최소한의 대우로 고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최근 다문화교육 강사나 다문화홍보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시청이나 복지관, 구청 등에서 제공하는 희망근로에 참여하는 여성들도 증가하고 있다. 또 중국이나 일본, 필리핀 등에서 온 여성들은 출신국의 언어강사로서 참여하고 있다. 대다수의 다문화가정 여성들의 사회참여 특히 일자리에 대한 요구는 매우 높으나 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곳은 매우 제한적인 것이 사실이다.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달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서 다문화강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중국여성은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하고, 일부는 통번역사나 사회복지사 양성과정 등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참여하는 등 다문화가정의 여성들의 사회참여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센터직원이나 사회복지사 같은 분에게~여기 센터에서는...많이 받고 학습지 많이 받고 복지관에서는 음.. 선물 많이 받아요.(사례1, 베트남, 32세)

다문화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기초 입국자에 대한 경제교육이나 소비교육에 대한 것 은행이나 병원에 가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고요, 저희가 많이 홍보가 되니까~여기에 공부하는 사람 한명이 알면 주변 사람들이 전화를 해요. 통역하러 가세요 하면 가고, 초반에 남편이랑 안 맞고 불만도 많고 그랬는데 이것을 하면서 상담도 많이 하잖아요.~과정 속에서 나는 정말 행복하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사례18, 조선족, 27세)

4) 초국가적 민족문화 네트워크 형성- 탈영토화와 재영토화

이주여성들이 출신국가와의 문화적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유지하며, 한국사회 속에서 어떤 초국가적 소수민족 공동체를 형성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주여성들은 대부분 친정과의 관계를 통해 초국가적 소수민족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다.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출신국을 방문한 경우가 많았고 가족 모두가, 혹은 자녀와 함께 친정을 방문하고 있었다. 또 돈을 벌고 모으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친정에 대한 정기적인 경제적 지원이지만 친정 방문을 목적으로 저축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또 결혼 후 친정식구가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도 많았다. 시모나 시댁식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출산을 전후하여 친정모가 방문하여 1년 정도 머무르다 공장에 취업하는 등 한국에 눌러앉는 예도 있었다. 일단 친정식구가 방문하면 연쇄이주와 국가 간의 교류가 증대되었다. 친정엄마가 한국에 방문하여 산구완을 하다가 일자리를 구하고, 여동생이 한국남성과 결혼을 하고, 다른 베트남 친구들을 한국남성에게 소개하는 등 초국가적인 문화교류가 나타나고 있었다.

결혼한 후에 베트남에 한 번 가 봤어요(사례3, 베트남, 32세)

결혼 한 후에 중국에 2004년에 아들 하고 같이 다녀왔어요...그 이후에는 2010년 3월 달에 갔어요.(사례13, 중국, 31세)

친정어머니는 초대로 한국에 한번 오신 다음에 중국에 돌아가시고 제가 한번 간적이 있었어요. 동생 돌아갈 때 또 다 같이 갔어요.(사례16, 조선족, 35세)

환경 너무 깨끗하고. 또 한국사람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 이게 궁금해서 왔어요. 다른 건 몰랐어요...우리 엄마 초청 와서 애기 태어나서 산후조리 그걸로 왔어요.(사례9, 중국, 33세)

아이 키우면서 어려웠어요. 봐줄 사람이 없잖아요...혼자 했죠...근데 요즘은 우리 어머니 계세요...친정 어머니 온지 한 3주 정도 됐어요.(사례14, 필리핀, 36세)

인터뷰를 통해 이미 한국사회는 결혼이주 여성들의 이주가 연쇄이주의 형태로 진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주자가 선이주자와 연결되어 한국사회의 정착에 도움을 받고, 이들이 또다시 본국의 비이주자들과 연계되어 친족, 친구, 동향인 등이 참여하는 관계망이 형성된다. 이로써 개인차원의 이주가 집단 전체의 후속 이주를 낳는 새로운 구조에 진입하였다. 초기 조선족들의 이주는 대표적인 연쇄이주의 형태라 할 수 있고, 베트남이나 통일교 등의 이주여성들도 다르지 않다고 본다.

남편 분은 외국여성과 결혼하는 걸 남편이 일하는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 2명이 중국인이랑 결혼 했어요.(사례12, 중국, 29세)

언니들도 한국에서 한국 분이랑 결혼했어요...다른 오빠하고 언니가 한국에 있어요...오빠는 우리 언니가 해줬고, 올케 언니는 마찬가지로 언니가 서울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언니가 초청을 해 줘서 온 거예요...엄마는 온지 3년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신랑이 초청해서 왔어요.(사례16, 조선족, 35세)

한국사람과 제 동생이 결혼하고 싶어 해요...자꾸 좋은 한국사람 있으면 결혼하고 싶다고 해요. 내가 그렇게 부러운 가봐요.(사례17, 필리핀, 38세)

이주여성들은 본국의 가족들과 출신국 여성들과 사적이고 긴밀한 네트워크를 발달시켜 상호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여성들은 대체적으로 친정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전화를 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이메일이나 영상통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정이랑 일주일에 한번 연락해요.(사례3, 베트남, 32세)

친정식구들이랑은 처음에는 자주 했는데 시간이 흐르니깐 별로 자주 안하게 되요. 일 있으면 전화하고, 돈 보낼 때 전화하고 그 정도...제가 결혼하고 나서 중국을 한 번도 못 갔어요...전화는 많으면 한 달에 두 번. 어쩔 때는 두 달에 한번?(사례15, 조선족, 35세)

필리핀 친정하고는 자주. 화상통화는 주일에 한번 정도.(사례17, 필리핀, 38세)

무엇보다 출신국가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적 인 원조였다. 이는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한국남성과 결혼하려는 목적 중의 하나이고, 이는 결혼중개업자들에게는 중요한 홍보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결혼한 한국남성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원하는 경제적 도움을 주지 못할 때 중요한 부부갈등의 원인이 되며, 많은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면접대상자 중 일본에서 종교적 이유로 결혼한 여성과 일부 중국출신 결혼이민자 여성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이주여성들이 친정에 송금하고 있었다. 대체적으로 시댁이나 남편도 친정에 송금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었으나, 정기적으로 하거나, 남편이 벌어오는 생활비의 일부를 송금하는 것에 대해서는 꺼리는 입장이 많았다.

친정에 송금을 해야죠...친정에서 부모님이 무엇 때문엔 돈이 필요하다고 해요...제일 처음에는 남편한테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을 때도 있었어요.(사례2, 베트남, 25세)

여기 생활은 조금 더 쉽고 돈도 있고, 그래서 조금씩 부모님한테 보내줘요...한국에 처음 왔을 때부터 여기 일하기 전에는 베트남에 송금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가끔씩 베트남에 송금하려고 30만원을 어떨 때는 부족하고 어떨 때는 남을 때가 있어요...부족할 때는 남편한테 조금 더 달라고 이야기 했어요.(사례3, 베트남, 32세)

지금은 제가 일하니깐 돈 부쳐줬어요. 근데 옛날에는.. 돈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 아빠가 아프다.. 당신이 돈 좀 부쳐주면 안될까?...니 돈 때문에 한국 왔나?...저도 돈 때문에 온 거 있지만, 그렇지만 저는 가정이 행복하게 사는 거 때문에 여기 오고 싶었지...(사례4, 베트남, 28세)

처음에 산업 연수생으로 입국해서, 저는 사실은 집을 샀어요...필리핀에서요...결혼하고 나서는 얘기가 있어서, 일을 그만두고는 못 보냈어요.(사례14, 필리핀, 36세)

중국에 있는 아들한테 교육비나 생활비를 그거 이때까지 남편이 다 알아서 보냈어요.(사례15, 조선족, 35세)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신랑이 생활비를 좀 부쳐줬다고 고맙데요. 저는 몰랐거든요. “너무 감동했어요.(사례16, 조선족, 35세)

통장 만들었어요. 저축해 놓고, 엄마 생신 할 때 필리핀에 보내줬어요. “남편이 따로 필리핀에 송금을 따로 또 해요. 제가 이야기하면 그때 해줘요. “친정에 송금을 할 때는 명절이나, 아버지가 편찮으실 때, 이런 이유로 송금(사례17, 필리핀, 38세)

친정에도 돈을 보내주는 그런 거는 없어요. 도로 받아서 써요. “엄마 아빠가 한국에 거의 5년 가까이 계셨거든요.(사례18, 조선족, 27세)

남편과 시댁식구들이 이주여성 출신국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높은 경우가 있었으나, 일본출신 여성을 제외하고는 다문화가정 여성들 스스로가 남편이나 시댁식구들이 출신국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해준다고 별로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출신국의 문화를 무시하고 낮게 본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타자에 대한 인정이 부족한 점이 이주여성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무시로 받아들여지고, 이것이 출신국 문화에 대한 향수와 애착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특히 한국인의 배타성은 이주여성들로 하여금 한국의 음식문화나 제사문화, 가부장적 전통에 따르기를 강요할 뿐 출신국 음식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예사였다. 이주여성들은 한국음식이 입에 맞지 않았지만 먹기와 만들기를 강요당하는 경우가 많았고, 출신국의 음식을 자주 해먹는 가정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시부모와 동거하는 한 베트남여성은 시부모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베트남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TV에서 보는 상황에 대해 베트남에서는 어떤지를 궁금해 하는 점에 대해 자랑스러움을 표현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일본과 같은 선진국출신의 결혼이주여성과 우리보다 경제적 수준이 낮은 지역 출신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문화에 대한 수용 정도나 인정에 있어 차이가 있었다.

저는 처음에 한국 와서 힘들었어요. 또 남편은 다른 사람은 베트남 아내니깐 베트남 음식점 어디 궁금하고 여기 베트남 음식점 있어서, 이런 거 관심 없어요. “다른 친구는 처음 와서 한국음식 입 맛 안 맞아서 음식점 어딘지 궁금하고, 힘들어요. 근데 남편 그런 거 없어요. “한국요리는 시어머니한테도 배우고 식당에 가

서 먹고 나서 해보고 해요. 남편은 베트남 음식 전혀 안 먹어요.(사례1, 베트남, 32세)

집에서 베트남 음식 해먹어요. “부모님도 같이 드세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남편도 베트남음식 먹어요. “식구들이 다 같이 먹어요.(사례2, 베트남, 25세)

육아를 할 때 특히 초국가적인 교류네트워크가 많이 형성되고 있었다. 자녀를 양육할 때 한국식과 출신국의 양육방식을 함께 사용하며, 출신국의 자장가, 동요나 동화책을 읽어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남편이나 시댁에서는 한국의 자녀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며 어머니가 외국인이어서 한국어 발달이 늦어질까 봐 대다수의 가정에서 자녀에게 한국어만을 사용할 것을 고집하여 갈등요소가 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 중국이나 필리핀 등의 이주여성에게는 이중 언어를 가르치는 것을 권장하고 자신의 자녀나 손자녀가 이중 언어를 하는 것에 자부심을 가져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출신국으로 유학을 하여 두 나라 사이의 교량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지금 한국말도 아직 못하고 베트남어를 바로 가르쳐주면 한국말이 서툴까봐 걱정했는데 근데 너무 아이가 바로 적응하고 부모님도 찬성하고 남편도 찬성하니까,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가족에는 반대하는 가족 없어요. “우리 아들 갑자기 베트남 노래.. 어머니이 무슨 노래 불렀냐고 하니깐, 제가 베트남 노래 가르쳐줬다고 했을 때 시어머니가 잘 가르쳐줬다고 말씀하셨어요.(사례2, 베트남, 25세)

남편은 아이한테 중국말과 동요를 가르치라고 해요. “복지관에서 아빠 프로그램 하는 거 했는데 그때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이중 언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깐 자기는 찬성한다고 그러더라고요.(사례15, 조선족, 35세)

영어로 대화하는 것을 저희 남편이랑 시아주버님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한국에 살고, 한국말도 잘 모르는데 왜 영어로 대화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저희 남편이 애들 학교 들어가니깐, 아, 그때 후회 많이 한다. 니 말대로 영어 가르칠걸.. 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늦었어요.(사례17, 필리핀, 38세)

V. 결론

한국은 현재 다문화국가로 변화하고 있다. 가족과 함

께 애정과 친밀성의 영역을 구성하는 ‘소수자들의 민족 공동체’의 현주소는 어떠하며, 다문화가정 여성이 한국사회에 정착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자신의 민족들과 ethnic group을 형성해 나가는지를 종단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1차적으로 다문화가정을 형성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한국남성과 결혼이주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사회적 연결망을 알아보고, 또 한국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어떤 사회적 관계망을 이용하며, 이들과 어떤 자원들을 교환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다문화가정 여성들의 사회적 연결망의 형성과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국제결혼과정과 결혼 이주후의 사회적 관계망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결혼이주과정은 결혼중개업자를 통한 이주조직과, 가족, 친지, 이웃 등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이용한 결혼, 연애결혼, 종교에 의한 결혼으로 나누어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다문화가정 여성들의 교류는 극히 사적인 수준에서 애정과 친밀성의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대부분이 비정기적으로 시간이 될 때 만나서 사적인 시간을 보내는 수준이다. 일부가 정기적으로 계의 형태로 만나며 친목도모와 함께 상호부조의 형태로 경제적인 저축을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공적인 형태의 조직으로 발전된 사례는 발견할 수 없었다. 이렇듯 아직까지는 다문화가정 여성들의 민족집단으로서의 특징은 매우 사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하지만 탈영토화와 재영토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출신국의 친정식구들과 지역적인 경계를 넘어 활발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한국에서도 출신국의 친족, 친구, 동향인들과 또 같은 출신국의 다른 다문화가정의 여성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즉, 출신국의 가족 친지들과, 한국 내에서도 한국가족은 물론이고 다른 다문화가정 여성들과 경제적 문화적으로 긴밀하게 교류하는 초국가적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있었다.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성들이 정치적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하더라도 이들의 문화적 활동과 정체성은 거주하고 있는 한국이라는 영토를 벗어나 있었다.

아직 공적인 소수민족집단으로 발전하고 있지 못하지만 인터넷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 출신국 사람들과 카페, 커뮤니티, 이메일 등 자신들만의 사회적 연결망을 확충하고 있었다. 이는 그들의 문화적응 유형도 변화시킬 것으로 보이며 다문화여성들과 본국출신의 외국인노동자들의 네트워크가 결합된다면 앞으로 소수민족 공동체의

결성과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문화가정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무너져가는 한국의 가부장적 핵가족을 연장시켜줄 인적자원으로 간주하고, 그들이 다문화가정은 꾸릴 수 있을지언정 결코 소수자 민족 집단으로 형성되지 못하도록 하는 세력이 작용하고 있는(H.J.Kim, 2007)한 이들이 소수자 민족 집단으로서 공적인 성장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새누리당 비례대표로서 국회의원에 진출한 이자스민씨의 경우에서 보듯이 결혼이주여성들이 정치적 힘을 가지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면 이런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등 다양한 지역의 아시아출신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각 나라마다 경제력이나 종교, 결혼이주기간 등의 차이가 있어 앞으로 이를 세분화하여 그 사회적 관계망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주제어: 다문화여성, 소수민족집단, 탈영토화, 재영토화, 초국가적 네트워크

REFERENCES

- Basch, L., Schiller, N. G. & Blanc, C. S.(1994). *Nations Unbound: Transnational Project, Post-Colonial Predicaments and Deterritorialized Nation-States*, Gordon & Breach Science Publishers, Amsterdam.
- Banting, Keith., Will Kymlicka.(2006). *Multiculturalism and the Welfare State: Recognition and Redistribution in Contemporary Democracies*. Oxford University Press.
- Barry, D. T.(2001). "Development of a New Scale for Measuring Acculturation: The East Asian Acculturation Measure(EAAM)", *Journal of Immigrant Health*, 3(4) : 193-197.
- Berry, J. W.(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1), 5-68.
- Choi, J. R. (2009). "Multicultural Age and Social Ethics : Multiculturalism in Deterritorialized

- Space: Problematic Situations and Signifying Practices”, *Social Theory*, 35, 47-78.
- Choi, J. R. (2010). “Multiculturalism Policies in South Korea: A Comparative Perspective”, *Social Theory*, 36, 229-285.
- Choi, Y. J.(2009). “Process & Planning of Multicultural Policies in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Culture & Arts of Multicultural Society*, the 6th Gyeonggi Cultural Forum.
- Cohen, S. & Syme, S .L.(1985). “Issue in the Study and Application of Social Support”, in Cohen, S. & Syme, S .L.(eds), *Social Support & Health*, Academic Press.
- Crang, P., Dwyer, C., and Jackson, P.(2003). "Transnationalism and the spaces of commodity culture",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7(4), 438-456.
- Gallup Korea(2007), *The Supportive Policies for Social Adjustment fo International Married Familie*, Social research Report.
- Han, K.Y.(2004). " Feminization of Immigration and International Marriage", Symposium Proceedings of Women Migrants Humanrights Center Commemorating the 3 years after Establishment , 1-16.
- Jeon, H. K. (2008). “Rethinking International Migration: Theoretical Perspectives on Diaspora Phenomenon”, *Journal of Korean Northeast Asia Association*, 49, 259-284.
- Jung, H. J. (2007). “The Spatial Entrapment of Women?: On Mobility of Female Transnational Marriage Migrants”, *Journal of Korean Urban Geographical Society*, 10(2). 53-68.
- Kim, E. M., & Kim, J. H. (2008). “The Formation and Social Organization of a Nascent Multi-Ethnic Society in South Korea Illustrations from Seoul's Foreign Communities”,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42(2). 1-35.
- Kim, E. S.(2007). *Acculturative Stress, Social Support and Social Adjustment of Marriage-Based Immigrant Women*, Doctoral Thesis, ChungBook National Univ.
- Kim, H. J.(2007). “Government Leading Multiculturalism in Korea: Multiculturalism Theories & Application in Korea”. in *Multiculturalism in Korea*, HanWool, 57-79.
- Kim, N. K. (2005). “Citizen in the Multicultural Era: A Case of Korean Society”,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45(4). 97-121.
- Kim, M. J., & Yoo, M. K., & Lee, H. K., & Chung, K. S. (2006). “Being 'Korean' Wives : Dilemmas and Choices of Vietnamese and Filipino Migrants”, *Korean Society for Cultural Anthropology*, 39(1), 159-193.
- Kim, Y. L.(2006a). "The Socio-cultural Adoption and Related Policies of Immigrated Female labor", Proceedings of Asia Womens's Research Association in SookMyoung Womens Univ., 45-98.
- Kim, Y. L. (2006b). “Women-Immigrants’ Lives and their Social-cultural Accommodation-related Policy for the Multi-cultural Society”, *The Journal of Asian Woman*, 45(1), 143-187
- Kim, Y. S.(2006). *Policy Agenda of Cultural Conflict Experiences and Communication Enhancement for Immigrant Wives*.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Kim, Y. S., & Kim, I. S., & Lee, C. H., & Park, Christian J. (2008).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 of Cultural Policy for Multicultural Society*,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Ko, M. K. (2009). *Making a Transnational Place : Seeing a Globalization of Seoul from Itaewon*, Master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Kwon, B. S., & Cha, B. H. (2006). "The Impact of Communication and Cultural Identity on Marital Satisfaction among Kosian Housewives in Rural Area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8(3), 109-134.
- Lee, S. J. (2004). "Female Migrant Diaspora: International Gendered Division of Labour, Cultural Hybridity, Otherness, and Sexuality",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38(2), 189-219.

- Lee, S. J., & Yang, A. G., & Change, M. H., & Choi, H. M., & Sohng, Sue. (2008). Development of Social Services for Marriage Migrant Women.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Lee, Y. G. (2007).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Socio-cultural Networks of Female Marriage Migrant: The Case of Boeun and Yangpyeong", *Journal of the Korean Urban Geographical Society*, 10(2). 35-51.
- Lim, Anna. (2005). *Family Relationship and Transnational Network of Filipino Wives Married Korean Husbands*, Department of Anthropology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 Moon, K. H. (2006). "Making Multicultural Korea: Can multicultural politics help foreign brides to fully integrate into Korean society?", *The 21st Century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16(3), 67-93.
- Parrenas, Rhacel Salazar(2001). *Servants of Globalization: Women, Migration and Domestic Work*. Stanford University Press, CA.
- Park, B. G. (2009). "Spatial Conceptualization of Transnational Migration : Focusing on Place, Territory, Networks, and Scale",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15(5), 616-634.
- Park, Kyoung Hwan(2006). "Diaspora, Ethnicity, and the Emerge of transnationalism", *Journal of Cultural and Historical Geography*, 18(3), 133-139.
- Park, K. H.(2007). "Grounding transnationalism 's' : three pitfalls in transnationalism scholarship", *Journal of Korean Urban Geographical Society*, 10(1), 77-88.
- Sandhu, D. S. and Asrabadi, B. R.(1994). "Development of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Preliminary findings". *Psychological Reports*, 75, 435-448.
- Seol, D.H.(2001). *International Mobility of Labor*, Seoul National Univ. Press.
- Seol, D. H., & Kim, Y. T., & Yoon, H. S., & Lee, H. K., & Lim, K. T., & Jung, G. S., & Ju, Y. S., & Han, G. S. (2005). *Foreign Wives' Life in Korea: Focusing on the Policy of Welfare on Health*,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Seol, D. H. (2006). *Marriage-Based Immigrants and Their Families in Korea: Current Status and Policy Measures*,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 Seol, D. H., & Lee, H. K., & Cho, S. N. (2006). *Marriage-Based Immigrants and Their Families in Korea: Current Status and Policy Measures*,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 Kim, S.H. & Jung, Y.H.(2004 translation), Seoul: Nanam.
- Ward, C., Bochner, S., and Furnham, A.(2001). *The Psychology of Culture Shock*, East Sussex: Rourledge.
- Yoon, In Jin(2008). "Korean Diaspora and the transnationalism", *Journal of Cultural and Historical Geography*, 20(1). 1-18.

접 수 일 : 2012. 05. 04.

수정완료일 : 2012. 06. 25.

게재확정일 : 2012. 06. 26.